

중국과 미국의 전쟁(!) 속에서 사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안효상 편집위원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 세계체제는 헤게모니 국가의 주기적 교체를 보여 준다.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와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차이를 무시하고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거칠게 살펴보면, 제노바 도시국가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이전했다. 그리고 과도기는 헤게모니를 둘러싼 쟁투의 시기였고 대규모 전쟁을 수반했다. 하지만 이런 헤게모니의 교체는 순환적이면서도 나선형적인 성격을 보인다.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는 이전 헤게모니 국가보다 더 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이다. 또한 헤게모니

행사의 기간도 더 짧아졌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힘의 약화는 우리가 새로운 헤게모니 교체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사를 살펴볼 때 다른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로 전환 혹은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전쟁을 수반할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과연 중국은 헤게모니 국가가 될 만큼의 힘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의 중국과 미국은 특히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과 오늘날의 전면전은 핵전쟁을 의미할 텐데 이를 감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두 나라의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부상하는 국가로서의 중국의 전략적 목표와 저물어 가긴 하지만 여전히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충돌 가능성은 없지 않으며,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양국 관계는 상당히 첨예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안보 분야 싱크탱

* 세계체제론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전이 된 윌러스틴, 『근대세계체제 1』(까치, 2013)을 보라. 2011년에 제4권이 출판되면서 이 책이 다루는 시기가 제1차 세계대전까지 내려왔다. 한국어판은 제3권까지 출판되었다. 헤게모니 국가의 순환과 관련해서는 조반니 아리기, 『장기 20세기』(그린비, 2008)을 보라. 세계체제론의 기본 틀을 받아들이면서도 교환 양식을 통해 사회구성체의 역사를 보려는 시도로는 가라타니 고진, 『세계사의 구조』(도서출판 b, 2012)와 『제국의 구조』(도서출판 b, 2016)을 보라.

**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교체와 관련해서는 조반니 아리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도서출판 길, 2009)를 보라. 세계체제론의 관점에 따른 이행에 대한 전망은 이매뉴얼 윌러스틴(외), 『이행의 시대』(창작과비평사, 1998)를 보라.

크인 랜드 연구소Rand Institute가 『중국과의 전쟁: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통해 생각하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전쟁이나 본토에 대한 지상군 공격은 배제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헤게모니 국가의 교체기에 벌어지는 전쟁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이때 우리에게 불거진 것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층위에 걸쳐 있지만, 무기로서의 사드의 효용성과 관련하여서는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겨냥한 것인가로 입장과 태도가 나뉜다. 이는 주로 사드를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살필 때 좀 더 포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우선 『중국과의 전쟁』이 가정하는 전쟁은 지역적 전쟁이고 재래식 전쟁이며 하이테크 전쟁이다. 또한 주로 해상과 해저, 공중(비행기, 드론, 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쟁의 양상을 띠 것이라고 한다. 지

* David C. Gompert, Astrid Stuth Cevallos and Cristina L. Garafola,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Rand Corporation, 2016. 이하 인용 쪽수는 괄호 안에 표시.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발화점이자 중국 군사력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시작하고 주로 이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군사력을 최대한 전개하고 상대방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능력이 증대함에 따라 서태평양이 ‘교전 지역^{war zone}’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재래식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아무리 격렬하다 하더라도 핵 보복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끝으로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제외하면 미 본토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 내 군사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재래식무기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본다(11).

이런 가정 속에서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한 하나의 프레임을 내세운다. 하나는 강도(온건한가 아니면 격렬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 기간(며칠 이내의 단기전에서 1년 혹은 1년 이상의 장기전)이다. 이 두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 전쟁 양상이 나온다. 온건한 단기전, 온건한 장기전, 격렬한 단기전, 격렬한 장기전(11~12).

또 다른 프레임은 시간 프레임인데, 2015년에서 2025년까지의 시간 축에 따른 변동을 말한다. 이 시간 축이 설정된 이유는 주로 중국의 군사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분석에 도입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Anti-Access Area Denial}(이하 A2AD)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이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해외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군

사적인 면에서 사이버 전쟁 및 반위성ASAT 능력은 양쪽 모두 향상될 것이며, 경제가 컴퓨터에 더욱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도 양쪽 모두 마찬가지다(12~13).

네 가지 전쟁 양상 각각이 가져올 수 있는 손실, 비용, 기타 효과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격렬한 단기전: 2015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해상 해군과 공군의 손실이 상당할 것인데, 여기에는 항공모함과 지역 공군 기지가 포함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본토에 있는 A2AD 체계를 포함해서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2025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A2AD가 향상되면서 미국의 손실은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손실은 더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손실이 더 클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단기전이라 할지라도 격렬한 전쟁일 경우 중국의 무역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양자 간 무역에서만 경제적 피해를 볼 것이다. 국제적, 국내적 정치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격렬한 장기전: 2015년에 격렬한 장기전이 발발할 경우 결과와 이후 전망 모두 중국에게 더 나쁘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개전 초기의 결과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이 현재보다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서해부터 남중국해까지 서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상업적인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위협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무역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더 심해지며 지역 내의 미국 동맹국, 특히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온건한 단기전: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 모두 신속한 군사적 승리의 불가능성, 통제권 상실의 위험,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해 전면적인 공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저강도의 단속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그 결말도 불확실하며, 군사적 손실은 최소화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경제적 손실이나 국내외적인 정치적 동요를 낳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 온건한 장기전: 전투는 제한적이고 손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양측은 저강도 갈등을 지속함으로써 타협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전투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손실이 특히 중국의 경우 증가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외적인 정치적 반응이 격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의 양상이 어떠한지 간에 어떤 요인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승자에게조차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사전 계획에 의해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우발적 사건이나 오판이 적대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이 개

입하는 경계선 밖에 있는 주변 국가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오판할 수 있다.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이를 12해리 밖에 있는 국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 인공 섬을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다(3~4).

하지만 이런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질 우발적 사건이나 오판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대전략’의 충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대결할 정도로 힘이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패권주의를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아시아로의 회귀’와 ‘재균형’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작년 9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두 나라 정상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사이버 테러를 거론하며 중국을 공격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중국의 해결책은 ‘신형 대국 관계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정치체제와 국익 - 특히 중국의 핵심 이익 - 을 존중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협조를 하자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중국공산당을 중국 부흥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봉쇄정책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봉

쇄정책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은 미국과 갈등을 벌이지 않으면서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나아가 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주요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중국의 광대한 영토적 요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의 이익의 침해를 인정해 달라는 술책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적인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곳이다. 2014년 4월 중미 국방장관 회담은 이 갈등이 증폭되는 전환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척 헤이글 Chuck Hagel은 “모든 당사국이 독발적인 행동 및 자신의 요구를 펼치기 위해 침해, 강제, 공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의 창완취안(常万全)은 “영토주권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이후 중국은 인공 섬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해당 수역에서 영토 회복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러한 행동이 도발적인 것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여 반접근 지역 거부를 확립하려 했다.

이런 갈등의 격화 속에 미국은 2015년 8월 새로운 아시아-태평

* Ryan Pikrell, “The Tipping Point: Has the US-China Relationship Passed the Point of No Return?”,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6 2015

양 해상 안보 전략을 개시했는데, 그 목적은 “해상의 자유를 보호하고 갈등과 강압을 억지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의 준수를 고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갈등과 강압을 억지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의 강화, 둘째 동북아시아에서 인도양까지 동맹국과 파트너 들이 해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 작업을 하는 것, 셋째 군사 외교의 강화, 넷째 지역 안보 기구의 강화 및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안보 기구의 발전 촉진.**

다시 돌아가서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보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통해 생각하기”라는 부제를 달고는 있지만 사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다른 해당국과의 갈등을 미국의 국익과 안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전에 갈등에 대해 상의하고 갈등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군사적 권고를 한다.

- 매우 강화된 군사작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 좀 더 생존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전환: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

*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2015, p. 1.

** 앞의 글, pp. 20~33.

- 미국 및 동맹국의 전투 수행 능력 강화: 생존 가능성과 함께 중국이 A2AD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 즉 타겟팅, 전역 미사일, 광역 방공망, 잠수함의 향상.

- 핵심 동맹국과 긴급사태 대책 수행: 일본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논란거리인 동맹국이지만, 기존의 낮은 수준의 미국-일본 군사 계획도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확립된 틀이며 이는 다른 동아시아 동맹국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육군은 지상 A2AD 능력 향상에 투자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파트너들에게 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파트너(특히 일본)와의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다(69~72).

2.

중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사이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한국은 사드 배치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이어 세 번째 충돌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국까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기술적으로나 군사경제적으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위상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B, C 혹은 KN-02 등은 사드의 요격 고도 이하로 비행한다. 다음으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AN-TPY-2)는 탐지 거리가 2,000킬로미터 이상인데, 이 미 기존의 레이더 시설을 감안할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과잉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한국 정부 당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한국 정부 당국의 주장과 별도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고영대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ICBM의 부스트 단계와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ICBM에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영대는 사드가 미, 일 본토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드의 군사기술적 효용성에 따르면 한국 배치 사드는 우선 한국을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일본, 오키나와, 괌 등을 겨냥한 북한이나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지만 조기 경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한국 배치 사드의 가장 큰 효용성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조기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 서재정,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위협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로?」, 『참작과비평』, 2015년 여름호.

** 고영대,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미중 간 전략 안정 흔들기」, 『참작과비평』, 2015년 가을호.

것이다. 물론 전제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2,000킬로미터가 아니라 4,000킬로미터 이상이라는 것이다.*

한국 배치 사드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 및 공해전(Air Sea Battle)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것은 A2AD의 일환인데, 군사적으로 보자면 하이난 섬에 있는 잠수함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중국 본토에 있는 군사시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따라 지상 발사 ICBM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2를 탑재한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미국 본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전략에 맞서 북쪽인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북방의 육군을 줄일 수 없고 이에 따라 남방 쪽의 해군을 강화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 배치 사드는 일종의 성동격서인 셈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는 괌이다. 미국은 군사력의 60퍼센트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고, 이때 괌이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A2AD 능력의 제고와 관련이 있다. 해군력이 약한 중국은 기본적으로 ‘요새 함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상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포대에서 접근하는 적의 함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

* 앞의 글, 558~561쪽.

늘날 요새 함대 전략은 미사일의 발전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군사기술상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3~4,0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괌의 군사기지로서의 효용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가속화되면서 괌도 중장거리 미사일(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의 타격 범위 안에 들었다. 이에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한국 배치 사드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한국에 X밴드 레이더 배치만을 요구했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된 이후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동맹의 강화라는 수단 속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 방위성 간부가 말한 것처럼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로 가는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 미국을 축으로 하여,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이 공통의 적인 중국에 대항하는 구도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거대한 체스판’인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이 양쪽에서 포위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조교】**

* 중국의 ‘요새 함대’ 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ames R. Holmes, “Defeating China’s Fortress Fleet and A2/AD Strategy: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Her Allies”, *The Diplomat*, June 20, 2016. 괌의 전략적 중요성의 제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정육식, 「미국의 신전략기지 괌, 한국도 비용 부담하나?」, 《프레시안》 2014년 7월 15일.

** 미중 간의 갈등 격화,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 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보는 최신의 흥미로운 글은 다음을 보라. 콘도 다이스케, 「사드 배치와 한, 미, 일의 대 중국 구상」, 『월간 중앙』, 2016년 8월호.